

## 제48차

##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에 다녀와서

(IFLA 48th General Conference)

구 자 영  
이화여대도서관학과교수

## I. 회의참석

올해의 IFLA총회는 Canada의 Montreal시에서 8월 23일~28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등록된 참석인원은 2,000여명으로 이들은 65개국과 20여개의 국제기구를 대표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구라파 나라들의 대거 참여가 눈에 띄었으나 미국의 적극적 참석과 일본의 대단위 대표단(80여명)은 새로운 인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장을 비롯하여, 국립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성암문고도서관장, 학산기술연구·장학재단도서관장, 강남사회복지학교 박상균교수, 한국개발원 사서장 및 필자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진행은 8월 22일에 부문별 “business meetings”와 특수주제발표(Libraries for the Blind)로 시작하였다. 총회의 첫날인 8월 23일에는 오전에 부문별 주제발표회의를 미리하고 전체회의의 개막은 오후 4시에 있었다. 개회식에는 Canada 수상, Quebec주지사, Montreal시장 등의 외부인사 소개와 환영사가 있는 후 “network”에 관한 3개의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회의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불어이었다. 회기동안 관광의날(8월 26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부문별 발표회의가 계속되었다.

이번 회기중 활발했던 부문별 모임은 연구도서관, 특수도서관, 행정도서관, 예술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지리·지도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맹인도서관, 서지통정, 공간행물, 도서관경영, 상호대차, 도서관경영기술, 정보기술, 지역별 활동(아세아, 아프리카 등), 목록, 분류 및 주제목록, 도서관학교, 도서관협회 운영, 도서관 전문지, 도서관건물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개의 부문별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참석의 한계가 컸으나 필자가 참석한 회의마다 논문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전문사서들의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발표논문은 현지에

서 인쇄본과 테이프로 보급되었다.

다양한 전문직 연구활동과 균형을 이루듯 회의기간동안 수차의 음악회, 미술전시회, 환영파티 및 만찬 등 문화적이고 사교적 프로그램도 풍부했다. 물론 전문직 고유의 전시회도 있었는데 DILOG, SDC, OCLC 등이 제품선전을 위하여 “demonstration”을 직접해서 보여주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다. 관광의 날 프로그램은 Montreal시를 비롯하여 근교의 도시와 도서관을 안내하는 다양한 내용이있으며 진행을 잘 조직하여 참석자 한사람 한사람이 목적인 바를 즐길 수 있었다. 또 회의참석한 대표들의 동행인을 위한 특별관광 및 문화활동도 있었다. 또한 이번 회의를 전후하여 Canada 전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계획도 있었다. 참석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시번역이 있었고 매일 IFLA Express가 발간되어 프로그램 변경 등 회의에 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도 있었다.

## II. 회의주제 “Networks”

회의주제는 최근에 도서관정보계의 관심을 집중시켜온 “networks”이었다. network 개념은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봉사의 범위와 성질을 혁신하고 있으므로 전문직의 주요 관심사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참석자들의 상당수(개발도상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twork의 잇점과 효과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컴퓨터통신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제에 관한 열의와 문제의식의 차이는 현저히 느낄 수 있었다.

Lancaster<sup>1)</sup>교수는 개회식에서 발표한 논문안에서 컴퓨터 기술활용으로 인한 “age of electronics”의 도래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에 보조를 맞추게 될 교육의 전반적 내용과 방법상의 변화를 예시하였다. 또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이 점차 “electronic library”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electronic publishing”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electronic publishing”은 경제성, 효율성, 다각적 이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전통적 인쇄출판을 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통적 도서관의 내용, 시설 및 사서의 역할을 변모시킬 것이다. 이미 컴퓨터 및 전자통신을 활용하여 도서관 내부의 서지기록활동에 있어 상당한 효율과 비용감소가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보다도 외부 data bases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것이야말로 근본적 변화의 양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도서관경계와 관련하여 전통적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입수하여 서가에 저장

1) Lancaster, F.W. “Response to the keynote address” 48th IFLA General Conference. 1982.

하므로써 자료접근이 가능했지만 전산화체제에서는 자료의 입수나 소유가 아니라 외부자원을 접근하는데 투자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용되지 않는 많은 장서를 수서·보관해야 하는 현재방안에 비하여 필요할 때(뚜렷한 수요가 있을 때) 한해서 “access”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영상의 혁신이라 하였다. 또한 “access”의 한계는 거의 무시되고 모든 종류의 자료를 어느 위치에서든지 동등히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 봉사에 있어서도 극히 혁신적 계기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Lancaster는 도서관의 소장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으며 networks 이용한 외부자원의 접근으로 도서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모델을 내세웠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방대한 도서관건물과 시설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며 새로운 형태의 정보봉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전문사서는 도서관이라는 작업장소에 매이지 않고 “free lancer”로써 사무실, 집, 기타의 장소에서 “terminal”만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자유로히 전문정보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전문사서의 주요 업무는 자료의 선정·조직·봉사인데 전산화체제에서는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수요에 따라 접근만 하는 것이므로 선정업무는 필요에 따라 어떤 정보원을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이며, 정보를 조직할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기술만은 극히 세련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와같은 변화가 사서교육내용에 반영될 것과 특히 사서의 활동을 도서관이라는 기관안에 국한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적 인간의사소통분야의 전문가로 확대시키도록 방향전환을 요청하였다. 즉 online network가 초래한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에 교과과정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신속히 변천되는 통신기술에 계속 친숙할 수 있도록 전문직의 계속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Lancaster가 시사한 변화의 양상에 관하여 참석자의 상당수가 실감치 못하는 느낌이였다. 회의와 반박의 소리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Cornish 교수가 비교적 온건한 주장을 내세우므로써 미래에 관한 다소의 안도감과 함께 network의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Cornish<sup>2)</sup>는 각종 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Lancaster가 예시한 “electronic age”의 도래가 분명히 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electronic system”의 효과는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책의 수요

2) Cornish, Edward “libraries of the future: electronic networks and human concerns” 48th IFLA General Conference. 1982.

를 자아낼 것이라 하였다. 특히 책은 지난 수세기동안 존속해왔고 최근에는 점점 증산일로에 있는데 이것은 책값이 점차 싸지고 있을뿐 아니라, 책은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책이 대량생산·보급되고 있고, 또한 육안으로 직접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책의 잇점때문인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책과 더불어 비디오 및 컴퓨터자료를 점차 많이 소장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인쇄물 중심에서 정보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도서관이 전산화를 통해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이라는 컴퓨터가 전통적 기술인 “책”을 위하여 중요한 일꾼노릇을 해주도록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Cornish는 미래의 도서관이 새로운 전자제품을 비축·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조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여건이 조성될 때 책은 계속 주요정보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기 2002년도에 가서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 책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텐데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책이 보다 싸고 신속히 생산되며 용이하게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현재보다 다양한 정보원과 봉사체제를 가춘 진실한 의미의 정보센터로써 승격하므로써 이용자와 지원자의 확고한 지원을 보장받는 동시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 21세기로의 돌입이 무난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이번 IFLA회의중 두차례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대표적 논문안에서 networks로 인한 도서관의 존재문제가 논의되었다. Lancaster에 의하면 완벽한 전산화체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봉사형태로 대체될 것이며 전문사서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될 것이라 하였다. Cornish는 다소 온건한 접근을 시도하여 현재의 도서관보다 확대된 정보센터로써의 존속을 희망·예시하였다. 어쨌든 networks는 도서관의 내용·시설·건물·이용자 및 전문직 모든 것을 변모시키는 혁신요소가 되고 있다.

### Ⅲ. 맺 음

내년도 IFLA 모임은 서독의 문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계속 있을 연차회의에 우리나라의 전문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세계적 전문직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인식·흡수하며 우리의 것을 전할 수 있다는 의의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정된 기회를 우리나라의 전문직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도적 계획 또한 고려할점인 것이다.